

# 29

## 새 지도자 여호수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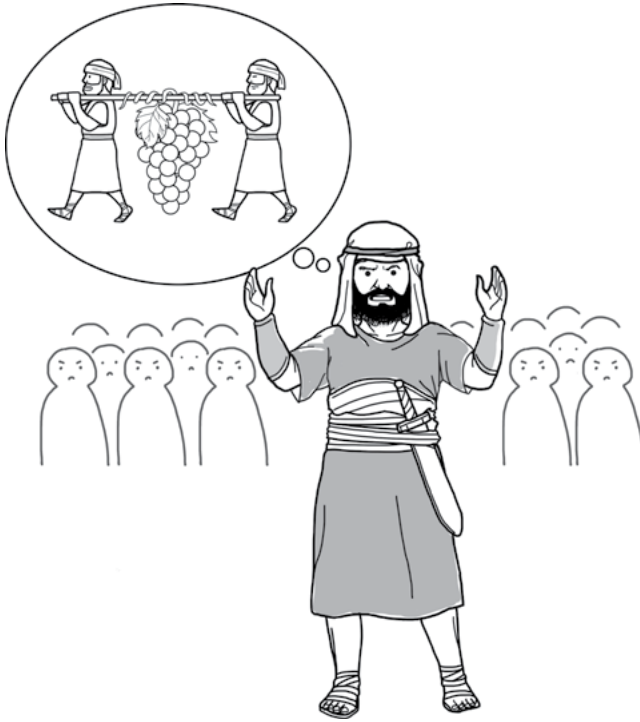
수 1:1~18

찬송가 382장 (허락하신 새 땅에), 찬양 80장 (파송의 노래)

### 오늘 배울



1. 하나님께서는 준비되고 훈련된 자를 사용하심을 압니다.
2. 하나님께서 승리를 약속하셨을지라도 사람이 믿음으로 행한 만큼 거둘 수 있음을 압니다.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가 네게 명한   
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  
 리니 이 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하여 그 가  
 운데 기록한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  
 라 (수 1:7~8)





## 을 마음판에 새기기 (암송)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수 1:9)

Have I not commanded you? Be strong and of good courage; do not be afraid, nor be dismayed, for the LORD your God is with you wherever you go. (Js 1:9)

- ① 말씀에서 핵심이 되는 단어 혹은 구절에 밑줄을 그어 보세요.
- ② 하나님께서 새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명한 것은 무엇인가요?



## 에 맞게 내 생각 바꾸기

- ① 모세의 뒤를 이어 새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세 가지로 정리해 봅시다(수 1:6~9).

①

②

③

2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찾아서 읽어보고 써 봅시다(수 1:1, 출 24:13, 33:11, 민 11:28).

3

여호수아에게서 본받고 싶은 점과 그 이유를 정리해 봅시다.

4

모세 후의 여호수아처럼 교회학교 학생들은 교회의 미래입니다. 내가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적어보고 분반에서 함께 교제해 봅시다.



을 삶에 적용하기

오늘의 말씀  
(말씀 쓰기)

오늘의 기도  
(감사 / 회개 / 간구)

일

신 17:19

Four horizontal lines for writing the word.

Four horizontal lines for writing the prayer.

의

수 1:5

Four horizontal lines for writing the word.

Four horizontal lines for writing the prayer.

화

시 1:2

Four horizontal lines for writing the word.

Four horizontal lines for writing the prayer.

↑

잠 13:20

---

---

---

---

---

---

---

---

↓

잠 15:33

---

---

---

---

---

---

---

---

↓

잠 22:24~25

---

---

---

---

---

---

---

---

↓

마 28:20

---

---

---

---

---

---

---

---



## 6일 전쟁의 승리

6일 전쟁 당시 이스라엘군을 이끌던 모세 다얀 장군은 세계가 깜짝 놀랄만한 선언을 했습니다. 다얀은 70배의 인구를 가진 아랍연합과 맞서는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새로운 무기가 있다고 선언했던 것입니다.

세계 사람들은 그것이 틀림없이 원자폭탄이나 수소폭탄을 능가하는 신무기일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그러나 다얀 장군은 “우리를 승리하게 할 신병기는 바로 시편 121편”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결국 그 전쟁은 6일 만에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6일 전쟁입니다.

현재 우리도 세상을 살면서 험겨운 싸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신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시 121:1~2)

## 질문 있어요~



고린도전서 5장 11절 말씀은, 특별한 죄를 지으면 그가 비록 형제일지라도 교회에서 내쫓으라는 뜻입니까?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람하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토색하거나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고전 5:11)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고 책망해서 크게 드러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회개하기도 전에, 돌이킬 기회를 갖기도 전에 교회를 떠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를 깨닫고 돌이키기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죄를 지적하고 책망해서 드러내는 것은 안 됩니다.

먼저 개인적으로 만나서 권고해야 합니다. 또 권고하는 사람은 신앙이 성장한 사람이거나, 전도인이나 가까운 친구 등 권고할 만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권고를 들으면 다행입니다. 형제를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듣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명히 죄를 지었는데 뉘우치지도 않고 돌이키지도 않고 부인합니다.

구약시대에 특별한 죄를 지었을 경우에는 두 세 증인을 세워 증거하였던 것처럼, 만약에 개인적으로 말했는데 듣지 않는다면 죄의 내용을 잘 알만한 증인을 세웁니다. 그래도 부인하면 교회에 말합니다.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 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 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참케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마 18:15~17)

교회가 말한다는 것은 교회의 입장에서 말하는 것, 교회의 권위를 가지고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도 안 들으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고 교회에서 내어 쫓습니다.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면 교회 안에서 근신하도록 합니다. 그 기간이 며칠이 될지 몇 년이 될지는 모르지만 얼마간 교회에 못나오게 할 수도 있습니다.